

## 현대 니트패션에 표현된 가변적 디자인

윤정아 · 이연희<sup>†</sup>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 The Modifiable Design Expressed in Contemporary Knit Fashion

Jung-A Yoon · Younhee Lee<sup>†</sup>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접수일(2010년 8월 26일), 수정일(1차 : 2010년 10월 20일, 완료일 : 2010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2010년 11월 10일)

#### Abstract

The modifiable design of clothes is significant in that a single garment can be presented in various ways and can be modified by user adjustments as well different kinds of figurative beauty can be expressed through the garment. This study departmentalized the case of knitwear in the modifiable design of clothes to propose a possibility of a variable knit fashion that makes the most of the knit characteristics. This study investigated precedent research, arranged general terms, created fundamental notions, found the background of the advent, and located specific characters in the modifiable design as well as arranged a concept, type, structure, and traits for the knit.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this study. First, the modifiable design of the clothes can express the change of the silhouette and the change of the item itself or a change in the item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mode of wearing, manipulation, and technology. Second, the results show that modifiable knit designs by open & close are mostly used according to manipulation and have no existence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technology. Third, there was a noticeable appearance of a modifiable knit design from 2002 to 2004. However, it was increased again in 2009 after a steady decrease in 2005 and 2008. Finally, it can create effects in several dresses in the visual aspect and functional aspect.

**Key words:** Knit wear, Modifiable design, Mode of wearing, Manipulation; 니트웨어, 가변적 디자인, 착장방식, 조작

#### I. 서 론

현대의 복식은 다양화된 사회구조와 생활패턴, 빠른 기호감성의 변화로 인해 착용목적과 동기의 복합성을 띄게 되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복식 디자이너들도 하나의 복식이 여러 용도로 변형됨으로써 자원절약과 폐기물의 감소효과를 줄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반영의 하나로 한 복식 내에서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가변적 복식의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며, 특히 니트를 활용한 가변적 복식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가변적 복식은 하나의 의복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가능하고 착용자의 능동적인 조작과 개입에 따라 용이하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조형미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기호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와 개인주의적 개성위주의 기호감성을 지닌 현대인들에게 가변적 복식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변적 디자인을 위한 의복 구성선의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yiyhee@hanyang.ac.kr

제한점과 활용 가능한 부자재 개발의 부족, 그리고 기능과 용도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미적 가치표현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특히, 니트웨어는 성별, 연령, 지역, 시대를 막론하고 넓은 소비자층에게 수용되어온 활용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이다. 사람과 자연, 일상에 큰 가치를 두는 웰빙(well-being)의 감성적인 무드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상징하는 니트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또한 수공예적 터치를 느낄 수 있는 니트는 사용된 실을 다시 풀어 짤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며 차별화된 개인의 감성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소재의 특성상 유연성과 신축성이 높은 니트웨어는 가변적 디자인에 적절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변적 디자인과 니트웨어는 '지속 가능한' 공통점과 변화 가능성의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연구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변적 복식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정립을 시도하고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양한 가변적 복식들 중에서 니트아이템만을 한정하고 분석하여 니트의 특성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패션 디자인의 적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주요한 범주가 되는 니트와 가변적 복식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하여, 가변적 복식에 관한 일반적인 용어와 개념, 출현 배경과 가변적 디자인의 특성 그리고 니트의 특성에 대해 정리한다. 둘째,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사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현대 니트패션에 나타난 가변적 디자인의 표현방법을 분석한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가변적 복식의 본격적인 출현이 시작되었던 2000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로 한정하고, 지역적 범위는 세계 4대 컬렉션인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컬렉션의 여성복 중 RTW(Ready To Wear)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해 현대 니트패션에 나타난 가변적 디자인의 표현방법에 대한 이론적 정리를 하고, 실증적 자료수집을 위해 세계 4대 컬렉션 자료를 최대 데이터 베이스로 보유하고 있는 패션 전문 인터넷 사이트(<http://www.firstviewkorea.com>)에서 사진자료를 1차 과정으로 257점을 수집하였고, 2차 과정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용어들을 중심으로 현대 니트패

션에 나타난 가변적 디자인의 표현방법의 분류기준을 정하였다. 3차 과정에서는 추출한 분류기준을 패션 디자인을 세부전공으로 하는 의류학 분야의 박사 4인, 석사 3인을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여 제시하고 1차 과정에서 수집한 사진자료와 각각의 표현방법을 대입시켜 최종 184점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류,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변적 디자인에 관한 고찰

#### 1) 가변적 디자인의 개념

사전적 의미에서 '가변적'이란 관형사로서 변할 수 있거나 변하는(한글학회, 1992) 혹은 명사로서 변할 수 있거나 변하는 것("가변적", 2009)을 말한다. '가변적'의 명사 형태인 '가변성'은 달라질 수 있는 성질(한글학회, 1992),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성질("가변성", 2009)을 의미한다. 즉, 가변적 디자인은 형태 및 구조가 변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디자인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디자인이다. 가변성의 개념은 변화된 환경 가운데서도 안정성을 유지 하면서 형태나 조직을 변경시키는 능력인 '다양성(Variability)'과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라는 의미의 '적응성(Adaptability)'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김수압, 1993), 이러한 속성의 측면에서 볼 때 가변성은 크게 외적인 가변성과 내적인 가변성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외적인 가변성은 실제 나타나는 디자인 결과물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내적인 가변성은 내부에서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으로 고정된 경계선이 있고 그 내부에서 변화가 있는 것이다(박일선, 2007).

일반적 의미에서 복식의 가변성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형태의 변화가 생기면 대부분 용도와 기능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변적 패션은 비슷한 의미인 다목적, 다기능, 다용도 패션의 의미로 사용된다(남윤진, 2001). 위에서 언급한 가변성의 두 가지 범주에서 본다면, 복식의 외적인 가변성은 의복에서 다른 아이템의 의복으로 또는 의복에서 소품으로 아이템 자체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내적인 가변성은 의복의 한 아이템 내에서 형태, 색상, 재질의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복식이 다른 기능으로 변형된 후에 반드시 처음 형태로 되돌아 갈 수 있어야 한

다(Quinn, 2002). 또한, 형태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와 사용목적을 충족하여 다양한 소비자를 수용하며, 착용자의 간단한 조작에 의해 실루엣이나 색채, 재질, 디테일 등에서 변형을 이루는 디자인을 의미한다(박상숙,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변적 복식이란 한 가지 이상의 다른 형태로 변화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며, 착용자의 간단한 조작이나 능동적 착장에 의해 변형이 가능한 복식을 의미하며, 단순한 변형과 달리 원형으로의 회복성을 포함하는 복식으로 제한한다.

## 2) 가변적 복식의 출현 배경

본 연구에서는 가변적 복식의 출현 배경을 20세기 사회문화 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부분들을 추출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여 가변적 디자인의 출현 배경을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의 기능주의, 해체주의, 디지털 환경 그리고 가치체계의 다원화로 보았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형태를 위해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형태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의식과는 다른 새로운 감성이 요구되고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는 것은 현대의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이동성과 편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지금까지 출현했던 형태를 부정, 혼합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며 열린 세계를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불확정적이고 탈 경계적인 사상적 경향은 예술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새로운 통신기술과 미디어는 현대 사회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인 유동성, 다원성, 불확정성, 탈중심성을 가속화하여 기술발달의 가속화에 부응하여 기술을 근거로 사상과 감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이봉덕, 2001).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영향, 장식을 거부하는 미니멀리즘 경향, 라이프 스타일과 고정관념의 변화, 다원적 상징(하지수, 2001) 등의 합리적인 실용주의와 기능주의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기능주의와 그에 반대되는 경향들 모두 양식의 연속적 개념으로 모든 시기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며 복합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20세기 초 지나친 기능주의 경향에 반발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든 예술

과 디자인에 지배적으로 나타난 1980년대가 지난 직후 가변적 패션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1990년대에 다시 새로운 기능주의가 강하게 나타났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기능 제품에 대한 선호가 확산됨에 따라 서로 다른 산업, 기술, 상품 간 복합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정진오, 1998). 패션에서도 이러한 분야 간의 결합은 증가되어 왔으며 다기능적인 디자인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대로 올수록 사람들은 일차적인 의복의 기능보다는 장식적이고 개인의 취향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경제적이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기능의 의복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은 해체주의와 키네틱 아트, 퓨전과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로 이어져 재현되고 있는데, 해체주의에 나타난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의복의 구조를 파괴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외관을 망가트리려 소재를 찢거나 더럽히고, 구김을 넣거나 안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던 부분을 겉으로 내어 표현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착용하고, 매치 시키는 것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박상숙, 2008). 이러한 해체주의의 탈구성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가변적 디자인의 방법적 측면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탈부착에 의한 변화를 보여주는 가변적 디자인에 주로 응용된다. 또한 착용방식에 있어서의 해체방식도 가장 단순한 듯 하지만 가장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사회구조뿐만 아니라 가치체계마저 변화시키고 있는 디지털 환경으로 인하여 사회와 단절된 개인의 소외현상과 군중 속에서 인간성의 상실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일면에서는 차별화된 개인의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것이 디자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대 패션에서는 기능 못지않게 개성의 표현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개성표출은 디지털 환경일수록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패션에서도 타인과의 차별화된 방식의 착장법이 가능하거나 필요에 따라 자율적 조합이 가능한 디자인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원화 경향은 경직된 정형화에서 연성화된 비정형으로, 획일적 태도에서 다원적 태도로 변화되어 가며, 개성, 창의성, 미학적 관심이 중시되는 다원화된 미래

사회를 반영하여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이유경, 1998). 현대 패션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은 거대 트렌드의 설정보다는 디자이너의 개인적인 미적 상상력과 삶의 형식에 따라 패션을 표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김민주, 2003). 이러한 가치 체계의 다원화는 복식 형태에 대한 일관된 인식을 변화시키고 유행의 다양성과 복식 조형성의 다양화로 이어졌다.

### 3) 가변적 복식 디자인의 특성

가변적 복식 디자인들의 일반적 특징은 변형을 통하여 길이의 변화, 실루엣의 변화, 디테일의 변화, 색채의 변화, 재질의 변화, 아이템의 변화 등을 수반하며,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시각적 효과와 조형미를 가진다(그림 1). 조형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하는 변화는 착용자의 선택에 의해 다각도로 연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심리적·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남윤진, 2001). 착용자가 원하는 만큼 변형시킬 수 있는 착용자의 선택을 반영하는 패션으로, 착용자의 선택에 의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착용자가 직접 원하는 목적을 가지도록 변형할 수 있는 가변적 패션은 현대 패션 산업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착용자’에게 선택적 착용을 가능하게 하는 패션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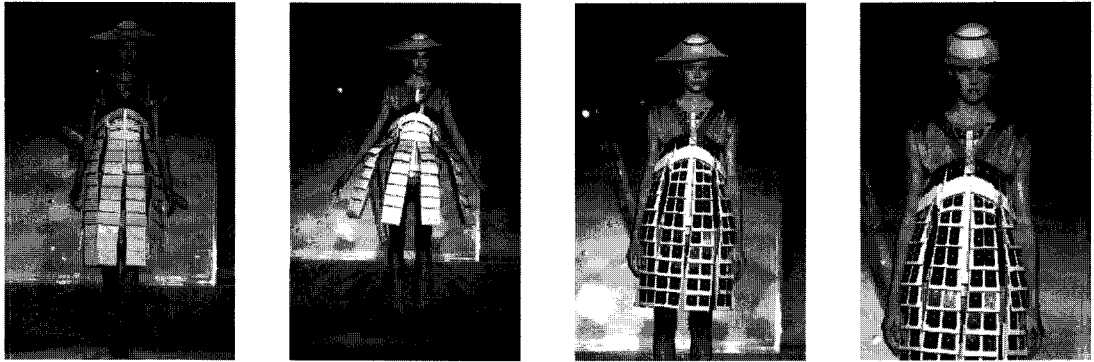
이러한 성향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복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술을 수반해야 하며, 패스닝 시스템(Fastening system)과 폴딩 시스템(Folding system)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현재까지 나타난 가변적 복식 디자인은 구조적 측면의 기술로 패스너(Fasteners)

를 이용한 패스닝 시스템과 폴딩 시스템, 착장방식의 응용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의복의 요소들을 분리, 결합하거나 조절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패스닝 시스템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의복의 요소들을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일을 수행하며(와트킨스, 1987/1998), 가변적 복식은 이러한 지퍼, 단추, 벨크로, 핀, 스냅, 끈, 후크 등과 같은 패스너의 작용에 의한 패스닝 시스템에 의해 목적에 맞는 다양한 변형을 가능하게 한다. 가변적 복식은 장식적, 구조적, 기능적으로 세 가지 측면의 적절한 결합과 조화에 의해서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그 방법적 과정에 있어서 복식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와 구조적 접근과 기술적 측면의 개발과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에 의해 도출되는 새로운 형태적 요소는 디자인에 있어서 부가가치창출의 근거가 되며, 이는 디자인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복식의 일상적인 개념을 탈피하여 다양한 목적성과 그로 인한 가변성의 부여는 패션에 재미와 창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공하여 유희성을 갖는다(이나경, 2007). 과거에 비해, 기존의 일반적인 유형과 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양한 유형과 방법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으며, 한 복식 내에서도 여러 가지의 가변적 유형과 방법들이 함께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이 접목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2). 또한 예술 간의 교류 확대로 인해 각 예술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가변적 패션 역시 그 적용범주를 패션 내에 한정시키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남윤진, 2001).



<그림 1> 2009 F/W Junya Watanabe, Paris



<그림 2> 2007 S/S Hussein Chalayan, Paris

2. 니트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니트의 종류

현대에 들어 니트웨어는 소재의 신축성으로 인해 활동적이고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소재의 복합성으로 인한 디자인의 다양성과 조형성은 TPO와 남녀노소의 경계를 무너뜨린 가변적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전현옥, 2002).

니트(Knit)는 루프(Loop)의 이어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직물이 날실과 씨실의 교차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비해서 니트는 가로 또는 세로의 어느 한 쪽의 실을 사용하여 루프를 차례로 이어가서 편물이 된다(김해영, 2001).

본 연구에서는 니트를 크게 핸드니트와 기계니트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표 1). 핸드니트는 수편기 또는 손뜨기로 뜨는 것이며, 기계니트는 공업용 기계로 편직하는 것으로 횡편니트와 환편니트를 포함하는 위편니트와 경편니트, 컴퓨터니트로 구분된다(권진, 2005). 핸드니트에는 두 개 또는 네 개의 대바늘로 뜨게질하는 대바늘 뜨기와 코바늘을 사용하여 뜨게질하는 코

바늘 뜨기 그리고 두 가지 수법의 특징을 살린 아프간 뜨기가 있다. 기계니트는 분류기준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내기도 한다. 구조와 편성방법에 따라 위편(Weft knit)과 경편(Wrap knit) 두 범주로 크게 분류되고, 또 다른 분류방법으로 제조방식에 의한 것이 있는데 패셔닝(Fashioning) 제품, 컷 앤 소우(Cut and Saw) 제품, 컷 앤 링킹(Cut and Linking) 제품 등 세 가지가 있다(김우중, 1987).

2) 니트의 구조와 조직

일반적으로 직물은 가로실과 세로실의 교차에 의해 여러 조직들이 만들어 지나 니트는 이와는 달리 Wale(세로 방향) 또는 Course(가로 방향)의 실을 이용하여 루프의 연결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조직이 얻어진다. 편물은 루프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그 구조를 정하는 요인은 조직, 밀도, 가공 등인데, 편물의 종류는 직물의 경우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루프를 코스 방향으로 형성하는 위편물과 루프를 웨일 방향으로 형성하는 경편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김성련, 2000).

<표 1> 니트의 종류와 특징

종 류	특 징	
핸드니트	대바늘 뜨기	걸뜨기 · 안뜨기 등이 기본 뜨기(절충 · 응용에 따라 각종의 무늬 뜨기).
	코바늘 뜨기	사슬 뜨기 · 짧은 뜨기 · 긴 뜨기가 기본 뜨기.
기계니트	위편니트	한 줄의 실이 가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편성. 직물과 마찬가지로 편편하게 또는 옷감의 폭을 조절할 수 있게 횡편기를 사용해서 편직될 수도 있고, 또는 재봉선이 없는 스타킹처럼 환편기에 의해 원통으로 생산.
	경편니트	편성물이 짜여지는 것으로 천의 세로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실이 진행하면서 위편성물과 달리 동시에 수백 가닥의 경사가 필요하며, 각 경사에 의한 루프들이 서로 연결되어 편직. 경편성물은 주로 횡편기에서 생산.

위편물의 기본 조직에는 코의 연결방식에 따라 평편(Plain Stitch), 고무편(Rib Stitch) 조직이 있고 이러한 기본 조직을 응용한 변화조직으로 펄편(Purl Stitch), 터크편(Tuck Stitch), 미스편(Miss Stitch), 레이스편(Lace Stitch), 케이블편(Cable Stitch) 등의 여러 가지 변화 조직이 있다(표 2). 또한 배색을 응용하는 편직방법으로는 컬러 자카드(Jacquard) 방법과 인타샤(Intarsia) 기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외 되돌아 뜨기 기법을 응용하는 디자인도 있다(김그림, 2007). 기본적인 조직으로도 다양한 표현특성이 나타나지만, 기법과 기법의 간격을 조절하거나, 너비, 길이 등에 변화를 주거나 혹은 실의 굵기에 변화를 주어 반복함으로써 일정한 패턴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

#### IV. 현대 니트패션에 표현된 가변적 디자인의 표현특성

가변적 디자인은 다각도의 방면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어느 한 유형에 국한된다기보다는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으며 한 의복 내에서도 그 표현방법이 하나의 유형으로 적용된다기보다는 혼합되어 적용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디자인의 유형과 표현방법으로 구분하였는데, 디자인의 유형이라는 것은 변형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고 표현방법은 그 결과물들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었다. 남윤진(2001)은 디자인의 유형으로 아이템 내의 변화와 아이템의 전환으로 분류하고 배운지(2004)는 의복 내적 변화와 의복 외적 변화유형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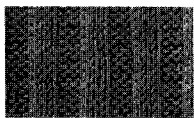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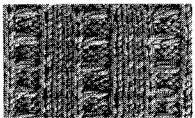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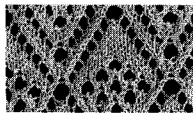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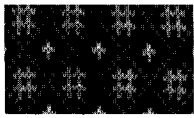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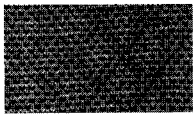

로 분류했으나, 사진자료 분석결과, 현대 니트패션의 경우에는 아이템의 전환사례가 아이템 내에서의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하여 균형 있는 분석이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변적 디자인의 표현방법을 분석의 틀로 정하였다. 이나경(2007)의 분류기준을 차용하였으나, 조작에 의한 변화는 박상숙(2008)의 분류기준과 같이 패스닝 시스템과 폴딩 시스템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1. 착장방식에 의한 변화

착용자가 의복이 완성되어 고정된 상태 그대로 수동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아닌 변화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가변적 복식을 착용자 자신의 기호에 따라 능동적으로 착용하는 방식이다. 자율적인 착장방식을 위한 사전계획을 하여 착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혹은 기존의 완제품 디자인들에 대한 착용자의 능동적인 수용에 따라 수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착장방식에 의한 변화들을 위치변경, 레이어드, 리버시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착장방식에 의한 변화 중에서 위치변경의 방법을 이용한 변형이 전체 60개 중에 41개로 6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위치변경은 의복의 구성요소들을 중복 제작하거나 미완성의 형태로 제작된 것을 자율적으로 착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레이어드나 리버시블에 비해 변형을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3년 F/W 파리 컬렉션에서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은 원래 암홀의 위치가 아닌

<표 2> 위편 니트조직의 종류

				
평 편 (Plain Stitch)	고무편 (Rib Stitch)	펄 편 (Purl Stitch)	터크편 (Tuck Stitch)	부 편 (Welt Stitch)
				
레이스편 (Lace Stitch)	케이블편 (Cable Stitch)	컬러 자카드 표면	컬러 자카드 이면	인타샤 (Intarsia)

자료출처: Parry-Jones. (2002). p. 33-215.; 한양여대 니트디자인연구소 소장 샘플.

곳에 암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여 제작하거나 절개를 넣어 주어 디자인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착용자는 원하는 위치에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보였다(그림 3).

레이어드는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부속을 함께 기획해야 하고,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 주어 착용자의 선택에 따라 변형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디자인해야 한다. 구성과 제작이 까다롭지 않고, 매우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변적 디자인의 특징으로 구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탈부착보다는 조합이 더 자유로운 가변적 디자인의 유형이 될 수 있다. 특히, 니트는 놓여지는 형태나 입혀지는 신체의 특성을 따라 흐르듯이 밀착되는 유연성 때문에 우븐에 비해 레이어드의 효과가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4>의 2003년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사례는 여러 개의 니트웨어를 겹쳐 입음으로써 칼라 배색의 다채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목판 자체에 들어간 슬릿 사이로 레이어드된 다른 의복의 색상과 재질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색상과 어떤 아이템의 옷이 레이어드 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레이어드의 사례 수는 착장방식에 의한 변화 중에서 22%를 차지하여 위치변경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리버시블은 겉과 안의 형태나 색채, 재질에서 차이를 두어 안으로 뒤집어 착용하였을 경우 겉과 다른 시각적 또는 촉각적 효과를 준다. 니트소재를 이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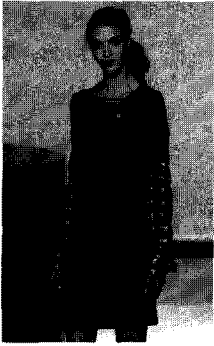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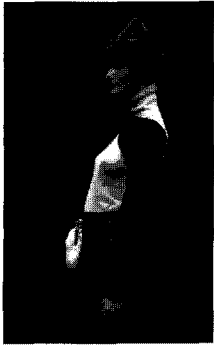
리버시블은 주로 꼬아 입는 방법인 트위스트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림 5>의 2008 F/W 밀라노 컬렉션에서 안테프리마(Anteprima)의 작품과 같이, 이 방법은 착용자의 여유를 드러내 주는 데에 효과적이며, 드레이프성과 신축성이 있는 유동적인 소재를 이용한 의복에서 반만 뒤집어 입으면 되는 손쉬운 방법이 기 때문이다.

2. 조작에 의한 변화

복식에서 폴딩 시스템은 개인차에 따라 의복의 길이나 둘레 등의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의복의 일부를 접어 내부에 숨겼다가 펼치는 과정에 의해 변형을 이루는 유형이다. 폴딩 시스템에서도 패스너를 이용하기 때문에 패스닝 시스템의 범주에 속하겠으나 가변을 위한 조작방식의 구분을 위해, 본 연구에서의 폴딩 시스템은 의복의 길이나 둘레의 변화를 위해 또는 의복의 일부를 내부로 접어 넣었다가 펼치는 과정을 통한 변화를 위한 유형으로 주름잡기(셔링), 묶기, 접어 넣기 등이 해당된다.

2004년 S/S 뉴욕 컬렉션의 디젤(Diesel)은 드로스트링(Drawstring) 기법에 의해 소매의 길이 조절뿐만 아니라 의복의 일부 또는 전체를 펼쳤다가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부피와 형태를 변화시키기도 하였다(그림 6). 까스텔바작(Castelbajac)의 작품에서 보여지듯이, 묶기(Binding) 또한 주로 끈이나 벨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표 3> 착장방식에 의한 변화사례

위치변경	레이어드	리버시블
		
<p>&lt;그림 3&gt; 2003 F/W Hussein Chalayan, Paris</p>	<p>&lt;그림 4&gt; 2003 F/W Vivienne Westwood, Paris</p>	<p>&lt;그림 5&gt; 2008 F/W Anteprima, Milan</p>

지만 주름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묶어 줌으로써 변화를 연출한다. 묶은 상태와 그것을 펼친 상태는 형태 자체의 큰 변화를 보여 줄 수 있다(그림 7). 접는다는 방법 자체가 길이나 부피의 가변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형을 위한 유용한 방법이고 특히, 니트의 경우는 소재의 유연성 때문에 접는 것 자체가 용이하고 우븐에 비해 주름이 덜 가기 때문에 접어 넣기 방법의 적용에 유리하다(그림 8).

폴딩 시스템이 이용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묶기가 44%, 주름잡기가 42%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접어넣기가 14%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접어넣기 방식은 의복의 일부분을 접어서 넣어 줄 공간의 확보가 요구되므로 사전에 구성을 계획해야 하므로 묶기나 주름잡기의 방식보다는 제한 점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패스닝 시스템은 사물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패스너와 이 요소들의 작용을 일컫는다. 패스너는 의복의 기능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의복의 형태와 외관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와트킨스, 1987/1998). 패스닝 시스템은 의복의 부분과 디테일을 모듈화하여, 즉석에서 조립하여 완성할 수 있는 모듈러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이는 다양한 조합에 의해 무한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며, 의복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미래 의복형으로 주목되고 있다.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가 2003년 F/W

컬렉션에서 단추나 스냅 지퍼 등을 사용하여 층층이 연결된 조각들을 의도에 따라 탈부착시켜서 길이의 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선보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길이를 조절하면 원피스의 아이템이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짧아져 티셔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아이템 자체도 바뀌는 경우가 된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패스너들의 소재나 칼라 자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그 자체가 모티브가 되어 디자인의 장식적 효과가 되기도 하였다(그림 10).

패스너를 활용하는 방식은 가변적 복식 디자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인 만큼 니트웨어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전체 수집된 사진자료 184개 중 74개의 사례가 나타나 40%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결과는 니트웨어가 뛰어난 착용감과 편안함뿐만 아니라 패스너를 이용한 기능적인 면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스닝 시스템 중 개폐는 지퍼 또는 단추 등의 패스너를 활용하여 열고 닫는 방식으로 변형을 이루는 방법이며, 수집된 사진자료 분석결과 개폐에 의한 변화는 주로 지퍼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부분 또는 전체의 개폐를 이용하였다. 이중 여밈의 사례도 개폐에 의한 가변적 디자인의 표현방법에 속하는데, 지퍼나 끈 또는 단추 등의 여밈 장치를 이중으로 만들어 착용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형태의 변화를 유도한다(그림 9).

<표 4> 조작에 의한 변화사례

폴딩 시스템			패스닝 시스템	
주름잡기	묶기	접어넣기	개폐	탈부착
				
<그림 6> 2004 S/S Disel, New York	<그림 7> 2002 F/W J.C. De Castelbajac, Paris	<그림 8> 2006 F/W Alexander McQueen, Paris	<그림 9> 2009 F/W Nicolas K, New York	<그림 10> 2003 F/W Dolce & Gabbana, Milan



전체 개폐의 사례 수 52개 중 지퍼를 사용한 경우는 29개로 55.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다른 패스너에 비해 단순한 조작으로 실루엣, 길이, 부피의 변화를 이루기 쉽기 때문이다. 탈부착의 경우 특정 패스너의 사용에 편중되기 보다는 단추, 스냅, 지퍼 끈 등이 고르게 활용되고 있었으며, 의복의 전체보다는 일부분을 탈부착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 탈부착은 개폐에 비해 구성선의 연결과 패스너의 조합에 관계된 사전계획이 필수적 요건이므로 출현 빈도 또한 개폐보다 적게 나타났다.

### 3. 기술에 의한 변화: 환경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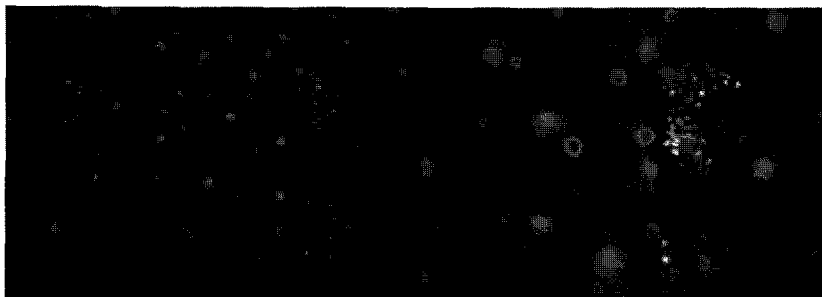
복식에 다양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변화를 주어 가변성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분석결과, 현대 니트패션에 표현된 가변적 디자인 중 기술에 의한 변화를 통해 표현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발표된 기술에 의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대부분 기계나 외부 작용이 개입되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반응하여 소재의 변화를 보인 니트웨어의 가변적 디자인은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A-POC Making』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림 11>의 특수 개발된 형광염료를 이용한 니트의 바디 수트와 원피스, 양말 등이 밝은 곳에서는 단순한 실루엣으로만 표현되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특수한 형광염료로 새겨진 무늬들이 발광하게 하여 또 다른 이미지로 표현되었다(Miyake & Fujiwara, 2001). 여기에 사용된 특수 형광염료는 이전에는 발광만 가능하고 색상의 변화는 없었던 수준을 넘어 발광 이전과 이후의 색상이 변화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발

광섬유나 축광섬유를 원사로 니트를 편직한 봉제완구를 시판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연구범위인 해외 컬렉션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었다.

기계가 삽입되는 경우, 의복 외적인 것들의 삽입된 형태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니트의 유연성보다는 형태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니트웨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바람을 이용하여 외형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니트소재의 루프 사이의 공간이 많아 즉, 다공성 때문에 바람을 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는 니트에서 찾아 볼 수 없었으나, 앞으로 다양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응용을 통한 표현방법은 다른 소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니트에서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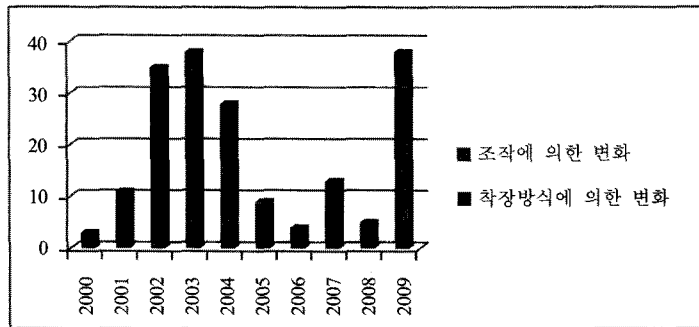
가변적 디자인의 사례들을 상위항목인 착장방식에 의한 변화, 조작에 의한 변화, 기술에 의한 변화로 구분하고 착장방식에 의한 변화의 하위항목은 위치변경, 레이어드, 리버시블의 세 가지로 나누었고, 조작에 의한 변화의 하위항목은 폴딩 시스템과 패스닝 시스템의 두 가지로 나눈 후, 각각의 세부항목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위에서는 세부 하위항목들로 나누어 살펴보고, 전체적인 연도별 출현 빈도 수는 <표 5>와 같고, 표현방법에 따른 연도별 출현 빈도에 대한 누적 그래프를 <그림 12>로 정리하였다. 표현방법들 중에서는 주로 조작에 의한 변화가 많이 이용되어 전체의 68%를 차지했으며, 구체적인 방식들을 살펴보면, 조작에 의한 변화 중에서도 패스닝 시스템의 개폐의 사례 수가 52개로 가장 많아 전체의 28.6%를 차지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주로 한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 한 가지 표현방법을 여러 위치와 여러 가지 실루엣에 응용하여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 시점에 니트를 단일아이템으로만 선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림 11> Issey Miyake 『A-POC Making』  
자료출처: Miyake & Fujiwara. (2001). p. 94.

<표 5> 가변적 디자인 표현방법의 연도별 빈도 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착장방식에 의한 변화	위치변경	0	5	8	6	7	0	0	3	0	12	41	
	레이어드	0	0	0	1	1	1	0	4	0	6	13	
	리버시블	1	0	2	0	2	0	0	0	1	0	6	
조작에 의한 변화	폴딩 시스템	묵기	0	0	5	1	0	0	0	2	3	11	22
		접어넣기	0	0	1	2	2	1	1	0	0	0	7
		주름잡기	0	1	5	6	6	1	0	1	0	1	21
	패스닝 시스템	개 패	1	4	8	14	8	6	1	2	1	7	52
		탈부착	1	1	6	8	2	0	2	1	0	1	22
기술에 의한 변화		0	0	0	0	0	0	0	0	0	0	0	
합 계		3	11	35	38	28	9	4	13	5	38	184	



<그림 12> 가변적 디자인의 표현방법 연도별 출현 빈도

주 소재로 활용하며 니트의 장점을 살린 가변적 디자인들을 선보였다. 한 디자인에 의한 작품들이지만 그 시점에 가변적 디자인을 시리즈로 선보였을 경우 그 연도의 출현 빈도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결과분석들을 정리하여 표현방법의 분류항목, 그 특징과 사례들을 요약,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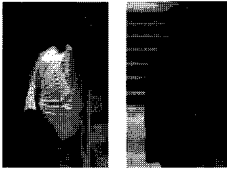
### VI. 요약 및 결론

가변적 복식은 하나의 의복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점과 착용자의 능동적인 조작과 개입에 따라 용이하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조형미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기호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표현방식이 가능하고 넓은 층의 소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가변적 디자인의 의의와 중요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가변적 요소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유연성을 지닌 니트웨어는 앞으로 기대되는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변적 복식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정립을 시도하고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양한 가변적 복식들 중에서 니트아이템만을 한정하여 분석하고 니트의 특성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가변적 디자인의 복식에 대한 문헌 고찰과 사진자료의 수집, 분석을 통해 가변적 디자인의 표현방법에 의한 유형별로 사례들을 분류, 분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니트패션에 표현된 가변적 디자인을 위한 방법적인 측면은 착장방식에 의한 변화, 조작에 의한 변화, 기술에 의한 변화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방법에 의해서 아이템 내에서의 변화 또는 아이템 자체의 변화를 수반한다. 둘째, 표현방법들 중에서는 조작에 의한 변화가 주로 이용되었고 그 중에서도 패스닝 시스템의 개폐를 이용한 사례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기술을 이용한 변화의 사례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셋째, 니트웨어의 가변적 디자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활발하게 나타나다가 점차 감소하고

<표 6> 가변적 디자인의 표현방법과 특징

표현방법		사 례	특 징	
착장방식에 의한 변화	위치변경		원래의 착용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위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착용하여 변형.	
	레이어드		여러 겹을 겹쳐 입는 방식으로 다양한 연출과 배색의 변화를 이룸.	
	리버시블		양면을 모두 착용 가능한 방식 또는 트 위스트 시켜 착용하여 변화를 유도.	
조작에 의한 변화	폴딩 시스템	주름잡기		끈이나 벨트 등을 이용하여 주름을 잡아 실루엣의 다양한 변화를 주는 방법.
		묶기		끈이나 벨트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묶거나 풀어서 형태의 변화를 이룸.
		접어넣기		의복의 일부를 접어넣거나 빼어 입는 방식으로 변화를 연출.
	패스닝 시스템	개폐		지퍼 또는 단추 등의 패스너를 활용하여 열고 닫는 방식으로 변형을 이루는 방법.
탈부착			의복의 일부 또는 전체를 떼어내거나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실루엣과 아이템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	

2009년에 다시 증가했다. 넷째, 가변적 복식 디자인은 착용자의 참여가 요구되는 형태로 자유롭게 완성되며, 시각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 여러 벌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실용적이고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착용자에게 즐거움과 새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즉,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가변적 복식 디자인은 현대 니트패션의 표현영역을 확대하여 디자인에 경쟁력 있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가변적. (2009). *한국브리태니커, 연세 한국어사전*. 자료검색일 2009, 2. 19, 자료출처 <http://kordic.britannica.co.kr>
- 가변성. (2009). *한국브리태니커, 연세 한국어사전*. 자료검색일 2009, 2. 19, 자료출처 <http://kordic.britannica.co.kr>
- 김그림. (2007). 카지미르 말레비치 절대주의 회화를 응용한 니트디자인.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3), 151-166.
- 김민주. (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변화 의상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련. (2000). *피복재료학*. 서울: 교문사.
- 김수암. (1993). *공동주택의 가변성 주호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우중. (1987). *섬유제품 기술지침서-편물계셔즈*. 서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섬유공학회.
- 김혜영. (2001). *여성 니트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진. (2005). *현대 니트웨어의 니트기법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나영원. (2006). *복식에 표현된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윤진. (2001). *변화를 수반하는 가변적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상숙. (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가변적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일선. (2007).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가변성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윤지. (2004). *다기능성 복식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와트킨스, 수잔. M. (1987). *의복과 환경*. 최혜선 역 (1998).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나경. (2007). *디지털 시대의 가변형 패션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봉덕. (2001).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유경. (1998). 현대 의상 디자인에 나타난 미래 이미지. *복식문화연구*, 6(4), 792-806.
- 장애란. (2002). Hussein Chalayan의 실험적 디자인. *복식*, 52(5), 91-107.
- 전현옥. (2002). *니트웨어의 변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진오. (1998). *21세기 정보화 시대와 디자인*. 서울: 시공사.
- 하지수. (2001). *20세기 기능주의 패션 디자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글학회. (1992). *우리말 큰사전*. 서울: 어문각.
- Miyake, I., & Fujiwara, D. (2001). *A-POC making*. Berlin: Vitra design museum.
- Parry-Jones, M. (2002). *The knitting stitch bible*. New York: Chartwell books, Inc.
- Quinn, B. (2002). *Techno fashion*. Oxford: Berg.